

DISCOVERY

성경 탐구

마태복음, 히브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Jesus
THE LIGHT of THE WORLD

KAFC 출판부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KAFC(한국 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 복사 및 수정, 배포할 수 없습니다.

왕의 탄생 (마태복음 1:1-4:11)

왕권의 선포와 증거 (마태복음 4:12-11:1)

왕의 가르침 (마태복음 11:2-20:34)

왕을 거부함과 예언 (마태복음 21:1-25:46)

왕의 고난, 죽음, 부활 (마태복음 26:1-28:20)

그리스도의 우월성 (히브리서 1:1-4:13)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히브리서 4:14-10:39)

믿음에 대한 권면 (히브리서 11:1-13:25)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에베소서 1:1-6:24)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빌립보서 1:1-4:23)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골로새서 1:1-4:18)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첫번째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1:1-5:28)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두번째 편지

(데살로니가후서 1:1-3:18)

DISCOVERY(성경 탐구)는 DAYBREK(매일 묵상)과 연계된 고등학생, 청년, 장년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왕의 탄생

성경 본문

마태복음 1:1 - 4:11

요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

배경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20년 또는 30년 후, 예수님의 택함받은 제자 중 한 명인 마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신약성경을 소개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마태가 특별히 강조한 점은 예수님이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 세기 전에 예언한 메시아(‘기름 부음받은 자’)이자 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구약성경을 자주 인용했으며, 이 복음서에는 유대인의 예언에 대한 언급이 약 60회, 구약에서 인용한 내용이 약 40회 나옵니다. 이는 마태가 유대인 청중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유대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명이 강조되었습니다.

마태(레위라고도 함)는 자신에 대해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한때 멸시받던 세리(세금 징수원)였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그분을 따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변화했습니다. 우리는 마태가 예수님의 동반자로서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오순절 전에 다락방에 있던 제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계적인 기록에 익숙했던 마태는 주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잘 정리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에 따른 사건을 세심하게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족보(요셉의 계보; 누가는 마리아의 계보를 제공함)를 볼 수 있습니다. 2장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사항, 즉 왕에 대한 경의(동방박사들의 방문), 왕에 대한 적대감(헤롯의 분노와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 왕의 겸손(겸손한 탄생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장의 사건과 3장의 시작 사이에는 약 3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장면과,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유혹을 받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됩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질문

1. 마태복음 1장 18-19절에서 요셉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나요? 요셉이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에서 요셉의 어떤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2. 1장 20-25절에 따르면, 요셉은 꿈에서 천사가 전한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요셉의 행동에서 그의 어떤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3. 거룩한 아이를 찾아간 동방박사들은 오늘날 이란 북부에 위치한 파르티아 제국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방박사라고 불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왕국 내에서 왕을 직접 선출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왜 고국에서 약 3,219km의 거리를 여행하며 선물을 가져와 아기 예수께 경배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마태복음 2장 9-11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동방박사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경배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섰지만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격려하셨습니까?
5. 마태복음 본문에는 여러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3; 2:6,15,17-18,23 참조). 예언이 성취되기까지의 기다림의 세월을 상상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을 이루도록 돕고 싶어할 수 있으나, 집중력을 유지하고 복음에서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6. 침례 요한의 인생의 주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이를 통해 우리의 목적과 관련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 2-3절을 참고하십시오.
7. 마태복음 4장 1-11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유혹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8.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마귀의 전술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결론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겪으시고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 약점, 기쁨을 공감하시는 위로자이십니다. 더 나아

가, 그분은 우리에게 힘과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을 거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왕의 탄생

성경 본문

마태복음 1:1 - 4:11

요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

배경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20년 또는 30년 후, 예수님의 택함받은 제자 중 한 명인 마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신약성경을 소개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마태가 특별히 강조한 점은 예수님이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 세기 전에 예언한 메시아(‘기름 부음받은 자’)이자 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구약성경을 자주 인용했으며, 이 복음서에는 유대인의 예언에 대한 언급이 약 60회, 구약에서 인용한 내용이 약 40회 나옵니다. 이는 마태가 유대인 청중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유대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명이 강조되었습니다.

마태(레위라고도 함)는 자신에 대해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한때 멸시받던 세리(세금 징수원)였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그분을 따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변화했습니다. 우리는 마태가 예수님의 동반자로서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오순절 전에 다락방에 있던 제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계적인 기록에 익숙했던 마태는 주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잘 정리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에 따른 사건을 세심하게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족보(요셉의 계보; 누가는 마리아의 계보를 제공함)를 볼 수 있습니다. 2장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사항, 즉 왕에 대한 경의(동방박사들의 방문), 왕에 대한 적대감(헤롯의 분노와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 왕의 겸손(겸손한 탄생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장의 사건과 3장의 시작 사이에는 약 3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장면과,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유혹을 받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됩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질문

1. 마태복음 1장 18-19절에서 요셉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나요? 요셉이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에서 요셉의 어떤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직 요셉에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요셉의 성품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거나 처벌하여 대중의 모범으로 삼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대신, 그는 마리아를 위해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이혼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고, 법적으로도 허용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의 무게를 감안할 때 매우 다양한 감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가 마리아의 평판을 염두에 두면서 이 상황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처리하려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1장 20-25절에 따르면, 요셉은 꿈에서 천사가 전한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요셉의 행동에서 그의 어떤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처녀가 하나님의 외아들을 성령에 의해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으며, 이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많은 의문과 두려움, 불확실성을 가졌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답변이나 증거를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요셉의 심경을 상상해 보도록 권유하십시오.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내가 그녀의 남편이 될 텐데 왜 나에게 먼저 묻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지금 오시는 걸까?' '이것이 진짜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일까?'

요셉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었지만, 그는 기꺼이 그리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확신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우리의 질문에 답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꿈을 꾸고 후 요셉은 두려움과 의심 대신 하나님 아들의 지상 아버지로 선택된 사실에 대한 영광을 느꼈을 것입니다. 25절은 이 거룩한 과정에 대한 요셉의 존경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3. 거룩한 아이를 찾아간 동방박사들은 오늘날 이란 북부에 위치한 파르티아 제국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방박사라고 불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왕국 내에서 왕을 직접 선출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왜 고국에서 약 3,219km의 거리를 여행하며 선물을 가져와 아기 예수께 경배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그 별이 예수님의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로마인과 파르티아인은 오랜 세월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로마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먼 여행을 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들의 경배는 세상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바쳐진 것이 타당합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시며, 진리에 보다 가까운 사람이 이를 깨닫지 못할 때 멀리 있는 사람이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줄 선지자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은 역사 속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가장 위대한 계시를 놓쳤습니다.

4. 2장 9-11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동방박사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경배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섰지만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격려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별을 사용하여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별은 동방박사들이 애초에 길을 떠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마태복음 2:2). 그 별은 동방박사들을 어린아이가 발견될 마을과 주변 지역으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기를 본' 정확한 장소로 인도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의 이해에 맡기지 않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점을 이야기해주세요. 동방박사들은 별에 의지해 길을 안내받았습니다. 헤롯 왕에게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을 때,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별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고, 그들은 헤롯과 대화한 후 다시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한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예를 들어보세요.

5. 마태복음 본문에는 여러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3; 2:6,15,17-18,23 참조). 예언이 성취되기까지의 기다림의 세월을 상상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을 이루도록 돕고 싶어할 수 있으나, 집중력을 유지하고 복음에서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압박하거나 인위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간섭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문을 강제로 여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 주시는 것의 차이점을 논의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방식의 결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몇 가지 예시를 공유해 보십시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계시며, 적절한 시기에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염려하다

보면, 그분과의 일상적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되어 많은 축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천국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세주와의 매일의 교제입니다. 매일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놀라운 기회들이 열릴 것입니다.

6. 침례 요한의 인생의 주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이를 통해 우리의 목적과 관련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 2-3절을 참고하십시오.

요한의 주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로 얻은 명성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의 특별한 소명에 대해 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것에 만족하였고,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분을 영접할 마음을 준비시키는 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만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잃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해보십시오. 자신을 내려놓고 복음의 대의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7. 마태복음 4장 1-11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유혹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취하시어 모든 인간적 약점을 받아들이셨기에 우리와 같이 유혹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감정, 걱정, 그리고 약점을 이해하시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강하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겪으셨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취하지 않으셨고 우리와 같이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다면 모든 것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토론해 보십시오.

8.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마귀의 전술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각 유혹에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분은 마귀와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의 어떤 전술도 극복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선다면 하늘로부터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11).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탄이 매우 교활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번이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으로 하여금 배고픔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다가올 것

입니다.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또는 "'만약' 당신이 구원받았다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귀는 교활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 의심을 심어주는 몇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며, 그의 목적은 언제나 의심을 조장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그가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요한복음 8:44 참조). 그가 정말로 세상의 모든 왕국을 그리스도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들이 실제로 그가 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마귀는 평화, 기쁨 또는 만족과 같이 그가 제공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려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겪으시고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 약점, 기쁨을 공감하시는 위로자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에게 힘과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을 거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왕권의 선포와 증거

성경 본문

마태복음 4:12 - 11:1

요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마태복음 7:28-29)

배경

침례 요한의 투옥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끝에 위치한 도시인 가버나움에 머무르셨습니다. 이 지역은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서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하셨으며, 갈릴리 해안가에서 네 명의 어부인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병자를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며,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이라는 단어는 '함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syn과 '모으다'를 의미하는 ago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당시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회당이 있었으며, 예루살렘에만 48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산상수훈을 하신 장소는 회당이 아닌 언덕 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명성은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르단 너머까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데가볼리는 주로 그리스 정착민들이 거주하는 요르단 동쪽 지역에 위치한 10개의 도시를 말합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요르단 너머'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갈릴리 바다 옆 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지역 지형이 자연스러운 원형극장을 형성하여 예수님의 음성이 잘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하틴의 뿔이라 불렸던 약 18m 높이의 정사각형 모양 언덕이 산상수훈의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일반적으로 팔복의 산으로 불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올바른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아홉가지 축복인 팔복으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소금과 빛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살인과 분노, 유혹, 이혼, 맹세, 용서, 원수 사랑, 구제, 기도, 금식, 하늘에서 보물을 얻는 것, 염려에 대해 교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청중들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며,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방법을 가르치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좁은 문', 멸망으

로 가는 길을 '넓은 문'에 비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후, 반석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을 묘사하면서 설교를 마치셨는데, 이를 통해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며,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시고,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등 다양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열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종류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사도로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질문

1.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태복음 4:17)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 처음 네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분께서 이 네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3. '복'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베아투스(신성)'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축복'으로 번역됩니다. 팔복의 각 구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의 말로 설명해보세요.
4.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비기독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상징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상징은 무엇이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러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13-16)
5.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6.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44)
7.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군중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7:28-29)
8. 마태복음 8장 23-27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탔을 때 폭풍이 몰아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곧 모든 것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고난 속에서 평안을 주신 순간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당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구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왕권의 선포와 증거

성경 본문

마태복음 4:12 - 11:1

요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마태복음 7:28-29)

배경

침례 요한의 투옥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끝에 위치한 도시인 가버나움에 머무르셨습니다. 이 지역은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서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하셨으며, 갈릴리 해안가에서 네 명의 어부인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병자를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며,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이라는 단어는 '함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syn과 '모으다'를 의미하는 ago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당시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회당이 있었으며, 예루살렘에만 48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산상수훈을 하신 장소는 회당이 아닌 언덕 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명성은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르단 너머까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데가볼리는 주로 그리스 정착민들이 거주하는 요르단 동쪽 지역에 위치한 10개의 도시를 말합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요르단 너머'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갈릴리 바다 옆 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지역 지형이 자연스러운 원형극장을 형성하여 예수님의 음성이 잘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하틴의 뿔이라 불렸던 약 18m 높이의 정사각형 모양 언덕이 산상수훈의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일반적으로 팔복의 산으로 불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올바른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아홉가지 축복인 팔복으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소금과 빛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살인과 분노, 유혹, 이혼, 맹세, 용서, 원수 사랑, 구제, 기도, 금식, 하늘에서 보물을 얻는 것, 염려에 대해 교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청중들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며,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방법을 가르치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좁은 문', 멸망으

로 가는 길을 '넓은 문'에 비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후, 반석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을 묘사하면서 설교를 마치셨는데, 이를 통해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며,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시고,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등 다양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종류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사도로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질문

1.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태복음 4:17)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지상 왕국을 세우고 그들을 속박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그러한 개념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지배 아래 억압받는 세상에 구원의 계획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엔끼조'는 '접근하다'는 뜻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류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이는 은혜의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를 회개로 시작하셨으며, 이는 그 나라로 가는 중요한 열쇠로 간주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오늘날 사람들이 '천국'을 알게 되는 방법을 공유하도록 권장하십시오. 학생들은 성령의 확신, 교회 초대, 개인적 간증, 인쇄된 복음 서적 등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 처음 네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분께서 이 네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처음 네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이유는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업 활동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의 목록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답에는 '사업, 가족, 친구, 취미, 직장, 물질적 소유, 개인적 야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복'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베아투스(신성)'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축복'으로 번역됩니다. 팔복의 각 구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의 말로 설명해보세요.

학생들이 답변을 나누고 이러한 자질을 보여줄 기회가 있는 일상적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격려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는 자신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겸손은 신앙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도덕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인식하고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와 도덕적 빛을 깨닫고, 애통함으로 인해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애통해 합니다.

온유한 자는 진정으로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닌, 자아를 덜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필요에 따라 교만을 내려놓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일 영적 양식을 위해 부지런히 구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궁홀히 여기는 자는 동료의 용서하며 그들의 잘못을 잊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중요한 증거이며 본성을 나타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성결한 경험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마음과 성결함을 지향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다툼과 분쟁을 예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진리를 옹호하다가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욕을 듣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이나 조소를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사람들이 비웃거나 비난할 수 있습니다.

4.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비기독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상징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상징은 무엇이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러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13-16)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두 가지 상징은 소금과 빛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풍미 강화제와 식품 방부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소금 없는 음식이 맛이 없듯이, 예수님 없는 삶도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간증과 모범을 통해 세상에 '맛'을 더할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기의 부패를 늦추기 위해 소금을 문질렀습니다. 학생들과 토론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죄의 "부패" 효과에 저항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8:12).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공의로운 태양"(말라기 4:2)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반사해야 합니다.

5.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Fulfil'(개역개정: 완전하게)이라는 단어는 '성취하다, 완성하다, 실행하다, 수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제시한 의식법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다양한 의식과 제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셨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율법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음을 예언했으며, 이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6.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44)

우리는 원수의 행동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서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저주하고, 미워하며, 부당하게 이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원수'에 해당되는 몇 가지 예시를 학생들에게 묻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목록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에는 반 친구, 직장 동료, 고객, 고용주, 가족, 이웃, 학생,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다툼 피하기, 순응하기, 친절한 대화 나누기, 예의바른 행동하기, 실제 또는 오해에 대해 신속하게 사과하기,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등이 있습니다.

7.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군중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7:28-29)

군중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으며,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는지 생각해보게 하십시오. 당시 사람들은 어떠한 유형의 가르침에 익숙했는지 논의해 보십시오. 학생들은 예수님께서서 의식, 규칙, 규정보다는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교육하셨다는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경건한 성품이 내면에서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신성한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8. 마태복음 8장 23-27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탔을 때 폭풍이 몰아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잠에서 깨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곧 모든 것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고난 속에서 평안을 주신 순간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당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몇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간증을 나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할 점은 우리가 어려움에 쉽게 압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 겸허하게 하나님께 응답과 평안을 구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실 때 일어난 폭풍을 보셨듯이, 우리의 상황 역시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구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왕의 가르침

성경 본문

마태복음 11:2 – 20:34

요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마태복음 13:54)

배경

11장은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제자 두 명을 보내 예수께 정말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찾아야 할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 대신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돌아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맹인과 못 걷는 사람을 고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은 이사야 35장 5-6절과 61장 1절에 예언된 메시아의 역할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12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계의 다른 사람들의 적대감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 계속 가르치셨고, 자신을 거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권위 있게 청중을 가르치셨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은 비유, 설교, 그림 삽화, 개인적인 사례를 통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은 믿음의 요소, 열매를 맺는 방법, 위선을 경계하는 방법, 천국을 준비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권위는 그분이 행한 기적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 몇 개로 군중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를 덮을 때까지 큰길과 골목으로 다니며 자신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올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산에서 변화하셨고, 백성들의 적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질문

1. 마태복음 11장 28-30절에서 죄인들에게 어떤 초대가 주어졌나요? 이 초대를 수락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2.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예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성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죄'로 불리는데, 이는 사람이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을 회개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왜 이 주제를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2:24-25)
3. 그물의 비유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7-49절에서 이 비유의 요소들의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바다 -
바다의 물고기 -
바다에 그물을 던지다 -
어부들 -
4. 마태복음 14장 22-33절을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러 가시는 동안 폭풍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배 안에 홀로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경험을 여러분이 시련에 직면했을 때의 경험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폭풍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깨끗한 손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입니다(마태복음 15:18-20). '더럽히다'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것들이 사람을 더럽힙니까?
6.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구했습니다(16:1-4). 그들은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표적을 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기적을 우연의 일치나 사악한 힘을 사용한 것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벗어나 그 분과 상관없는 위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표적 보여주기를 거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7.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질이 있는 소년을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20)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일지라도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8.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람이 얼마나 자주 용서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랍비들은 사람들이 세 번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

쳤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일곱 번이면 충분하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특별히 관대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으며, 그 대답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9. 한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된 여섯 가지 계명을 나열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요구 사항은 무엇이었고, 예수님은 왜 그 청년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9:16-22)

10. 마태복음 20장 1-16절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이며, 품꾼은 그분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오늘날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까?

결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왕의 가르침

성경 본문

마태복음 11:2 – 20:34

요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마태복음 13:54)

배경

11장은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제자 두 명을 보내 예수께 정말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찾아야 할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 대신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돌아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맹인과 못 걷는 사람을 고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은 이사야 35장 5-6절과 61장 1절에 예언된 메시아의 역할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12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계의 다른 사람들의 적대감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 계속 가르치셨고, 자신을 거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권위 있게 청중을 가르치셨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은 비유, 설교, 그림 삽화, 개인적인 사례를 통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은 믿음의 요소, 열매를 맺는 방법, 위선을 경계하는 방법, 천국을 준비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권위는 그분이 행한 기적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 몇 개로 군중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를 덮을 때까지 큰길과 골목으로 다니며 자신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올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산에서 변화하셨고, 백성들의 적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질문

1. 마태복음 11장 28-30절에서 죄인들에게 어떤 초대가 주어졌나요? 이 초대를 수락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초대는 죄책감과 죄의 무게로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이 초대는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온전히 복종할 때, 우리는 그분과 멍에를 함께 하고 우리의 헛된 수고가 영적 창조성으로 바뀌어 목적과 평안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2.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예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성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죄'로 불리는데, 이는 사람이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을 회개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왜 이 주제를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2:24-25)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루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로 시작해도 좋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걱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결코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그물의 비유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7-49절에서 이 비유의 요소들의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바다 - 세상은 바다를 상징합니다.

바다의 물고기 -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사람들은 '바다의 물고기'와 같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다 -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어부들 -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일하는 이들, 즉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사람들입니다.

4. 마태복음 14장 22-33절을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러 가시는 동안 폭풍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배 안에 홀로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경험을 여러분이 시련에 직면했을 때의 경험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폭풍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급 토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에서 폭풍우를 막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자들은 폭풍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가장 어두운 밤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폭풍은 얼마나 자주 그 자체로 어둠을 가져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풍랑 속에 평화를 가져다주셨듯이, 우리 마음의 혼란에도 평화를 가져다주실 것입니다.

5.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깨끗한 손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입니다(마태복음 15:18-20). '더럽히다'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것들이 사람을 더럽힙니까?

'Defile(개역개정: 더럽게 하느니라)'는 '(신성하거나 중요한 것을) 더럽히다'라는 뜻입니다. 더럽힘은 죄의 생각, 태도, 행동을 품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의 전조이므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악한 행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에는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마음 속의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십시오. '성결을 통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6.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구했습니다(16:1-4). 그들은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표적을 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기적을 우연의 일치나 사악한 힘을 사용한 것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벗어나 그 분과 상관없는 위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표적 보여주기를 거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대로 행함으로써 쉽게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었지만, 하늘의 기적조차도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무시하고 그분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기 전에 어떤 종류의 물리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회의적인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기적과 2000년의 교회 역사, 그리고 삶이 변화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명백히 존재하는 증거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질이 있는 소년을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20)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일지라도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겨자씨는 알려진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큰 식물로 자랍니다(마태복음 13:31-32). 작은 믿음에도 큰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심지어 약한 믿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믿음이 살아 있고 자라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활동하십니다.

8.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람이 얼마나 자주 용서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랍비들은 사람들이 세 번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일곱 번이면 충분하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특별히 관대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으며, 그 대답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숫자는 정확한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에게 무한한 용서가 기대된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학생들과 함께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에게 너무 심하게 상처받았어요."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은 명확하고 직접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용서해야 합니다.'

9. 한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된 여섯 가지 계명을 나열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요구 사항은 무엇이었고, 예수님은 왜 그 청년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9:16-22)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이 요구는 그가 자신의 재산을 신처럼 여기며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거부함으로써 그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출애굽기 20:3).

학생들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도 보신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 알고 계시며, 언젠가 그분은 우리에게 그 요점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에 집착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전혀 주님이 아닙니다'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10. 마태복음 20장 1-16절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이며, 품꾼은 그분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오늘날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과 그분을 섬기는 보상이 사람들의 시대나 섬긴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받는지와 비교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결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왕을 거부함과 예언

성경 본문

마태복음 21:1 – 25:46

요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1:42-44)

배경

이 장에서는 예수가 왕으로 나타난 일, 종말 사건에 대한 가르침,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의 지상사역이 끝나갈 무렵, 현재 우리가 종려주일로 기념하는 날에,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왕이 임명될 때마다 대관식을 치르는 관습에 따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고, 길에 옷과 나뭇가지를 깔았습니다. 당시에 정복자와 왕족은 이런 방식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빌라도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라고 물었을 때, 군중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는 성전으로 가서 제물로 팔 물건을 가져온 사람들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엮었습니다. 그 상품들은 비둘기, 소, 양, 기타 희생 제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환전상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과 개종자들에게 당시 유대 화폐와 교환하며 자신들의 화폐를 제공했습니다.

예수는 반대가 거세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공과에서 다루는 많은 비유는 위선이 아닌 참된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를 질투하는 비판자들은 정직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를 모함하기 위한 여러 질문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바리새인(종교 집단)과 헤롯당(정치 집단)은 서로 적대적이었지만, 이때는 예수께 대항하기 위해 단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로마 세금 납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만약 예수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고발할 것이었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하면 헤롯당은 헤롯에게 반역한 죄로 체포하려 했습니다. 예수의 대

답은 그들의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는 또 다른 종교 집단인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성경의 처음 다섯 권인 오경만을 율법의 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집단은 오경에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여 이에 답변하면서, 그 구절이 언급된 한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위대함'은 사람들로 부터 얼마나 많은 명예와 명성을 얻었는지에 따라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맹인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라고 하며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수로 모기나 율법에서 금지한 작고 더러운 것을 삼키지 않기 위해 물을 걸러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식적 청결의 세부 사항에는 신경을 썼으나, 위선, 정욕, 속임수 등의 더 큰 문제를 간과했습니다.

24장은 마지막 날, 즉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관한 경고입니다. 예수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 잃어버릴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5장에서 예수는 재림할 때의 준비에 대해 세 가지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영적 상태와 준비 상태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경고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충실한 봉사에 대한 보상과 태만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비유는 사랑과 자비의 행위를 통해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질문

1. 마태복음 21장 1-1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목격한 군중들 가운데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한 주 동안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외친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로부터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까?
2. 마태복음 21장 12-17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 성전에서 그분이 불쾌하게 여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원리를 가르쳐 줍니까?
3. 예수님께서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가 시들게 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 중 하나는 위선에 대한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는 거짓된 신앙 고백의 '잎사귀'만 있을 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 없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열매의 예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1:18-22)
4.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거대한 건물의 머릿돌에 비유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

로 만들어 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1:33-46)

5. 혼인 잔치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 예식에 온 한 사람을 묘사하셨습니다. 그의 변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혼인 예복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2:11-14)

6. 마태복음 23장에는 종교적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비난이 기록되어 있으며, 마태복음 23장 11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자신의 말로 설명하고, 일상 생활에서 이러한 태도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 네 가지를 제시하세요.

7. 마태복음 23장 23-2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율법의 일부를 강조하면서 다른 중요한 원칙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십일조와 관련하여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8.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하는 "올리브산 담화"를 시작하십니다. 이 장에서는 죄악(문자 그대로 '불법')이 넘쳐나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경향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12-13)

9. 예수님께서서는 곧 재림할 주님을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시며, 마지막 날에 사는 사람들을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행했던 일(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마태복음 24:36-51)

결론

예수님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자,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인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림 전에 발생할 일들 및 그때까지의 삶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셨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여 임박한 재림을 대비해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왕을 거부함과 예언

성경 본문

마태복음 21:1 – 25:46

요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1:42-44)

배경

이 장에서는 예수가 왕으로 나타난 일, 종말 사건에 대한 가르침,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의 지상사역이 끝나갈 무렵, 현재 우리가 종려주일로 기념하는 날에,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왕이 임명될 때마다 대관식을 치르는 관습에 따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고, 길에 옷과 나뭇가지를 깔았습니다. 당시에 정복자와 왕족은 이런 방식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빌라도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라고 물었을 때, 군중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는 성전으로 가서 제물로 팔 물건을 가져온 사람들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엮었습니다. 그 상품들은 비둘기, 소, 양, 기타 희생 제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환전상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과 개종자들에게 당시 유대 화폐와 교환하며 자신들의 화폐를 제공했습니다.

예수는 반대가 거세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공과에서 다루는 많은 비유는 위선이 아닌 참된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를 질투하는 비판자들은 정직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를 모함하기 위한 여러 질문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바리새인(종교 집단)과 헤롯당(정치 집단)은 서로 적대적이었지만, 이때는 예수께 대항하기 위해 단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로마 세금 납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만약 예수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고발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하면 헤롯당은 헤롯에게 반역한 죄로 체포하려 했습니다. 예수의 대답은 그들의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는 또 다른 종교 집단인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성경의 처음 다섯 권인 오경만을 율법의 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집단은 오경에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여 이에 답변하면서, 그 구절이 언급된 한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위대함'은 사람들로 부터 얼마나 많은 명예와 명성을 얻었는지에 따라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맹인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라고 하며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수로 모기나 율법에서 금지한 작고 더러운 것을 삼키지 않기 위해 물을 걸러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식적 청결의 세부 사항에는 신경을 썼으나, 위선, 정욕, 속임수 등의 더 큰 문제를 간과했습니다.

24장은 마지막 날, 즉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관한 경고입니다. 예수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 잃어버릴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5장에서 예수는 재림할 때의 준비에 대해 세 가지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영적 상태와 준비 상태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경고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충실한 봉사에 대한 보상과 태만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비유는 사랑과 자비의 행위를 통해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질문

1. 마태복음 21장 1-1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목격한 군중들 가운데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한 주 동안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외친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로부터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까?

학급 토론을 통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는 예수님을 지지하기가 쉬운 반면, 그러한 상황이 아닐 때는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동료와 함께 식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교실에서 교사가 기독교인을 조롱할 때 이를 지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리스도를 지지할 방법을 몇 가지 나열하도록 지도하세요.

2. 마태복음 21장 12-17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 성전에서 그분이 불쾌하게 여긴 일은 무엇이였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원리를 가르쳐 줍니까?

상인들과 환전상들은 성전 뜰에서 장사를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의 요점은 '하나님의 집은 항상 최고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과 논의하세요. 예를 들어, 의미 없는 대화를 피하기, 교회를 기도의 장소로 만들기,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교회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교회 재산을 소중히 여기기, 성소 구역에서 조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기 등이 있습니다.

3. 예수님께서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가 시들게 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 중 하나는 위선에 대한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는 거짓된 신앙 고백의 '앞사귀'만 있을 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 없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열매의 예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1:18-22)

학생들은 '열매'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성령의 열매(갈라디아서 5:22-23)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랑이 모든 말과 행동의 동기'임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등 그리스도인의 훈련에 성실히 임합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거대한 건물의 머릿돌에 비유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흠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1:33-46)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 비유를 통해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에게 반응한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돌'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 돌에 짓밟힐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진정한 회개(깨어짐)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는 그들의 운명을 바꾸기에 너무 늦은 시점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아) 가루가 될 것입니다.

5. 혼인 잔치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 예식에 온 한 사람을 묘사하셨습니다. 그의 변명은 무엇이었습니다? 혼인 예복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2:11-14)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의 하객에게는 잔치에 입을 예복이 제공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주최자에 대한 무례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혼인 예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학생들과 토론을 하다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삶을 바치지 않는 데 대한 이유를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때 그들은 거절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6. 마태복음 23장에는 종교적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비난이 기록되어 있으며, 마태복음 23장 11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자신의 말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태도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 네 가지를 제시하세요.

예수께서는 진정한 위대함은 섬김에 기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고대 그리스어에서 식탁의 웨이터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관련이 있습니다(마 22:37-39).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방법에는 교회 프로젝트 지원, 봉사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 노인이나 집에만 있는 사람을 위한 심부름, 아픈 사람에게 쪽지나 카드를 보내기 등이 있습니다.

7. 마태복음 23장 23-2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율법의 일부를 강조하면서 다른 중요한 원칙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십일조와 관련하여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이 십일조의 원칙을 인정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십일조를 드리면서도 공의와 자비,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십일조)도 행하고 저것(정의, 긍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8.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하는 "올리브산 담화"를 시작하십니다. 이 장에서는 죄악(문자 그대로 '불법')이 넘쳐나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경향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12-13)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율과 이혼율의 증가, 미디어에 만연한 악과 성적 난잡함, 마약, 술, 담배, 도박 및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의 증가.

학생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로 특정 규율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 기도하기, 교회 출석하기, 다른 사람들과 종교적인 대화 나누기 등. 크리스천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은 진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의무감이나 평범한 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한 복음주의자의 조언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는 마음을 다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정이 변화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9. 예수님께서서는 곧 재림할 주님을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시며, 마지막 날에 사는 사람들을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행했던 일(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마태복음 24:36-51)

먹고, 마시고(무알코올 음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모두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너무 만족하고 안주하여 가장 중요한 점인 영원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생각이나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론

예수님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자,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인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림 전에 발생할 일들 및 그때까지의 삶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셨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여 임박한 재림을 대비해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본문

마태복음 26:1 – 28:20

요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태복음 26:28)

배경

역사적으로 이 시기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도 임명하였습니다. 가야바는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사위로서 대제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가야바는 대부분의 전임자들보다 더 오래, 18년 동안 대제사장을 지낸 것으로 보아 로마 당국과 원활하게 협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를 처형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제안한 인물은 가야바였으며, 그는 다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함께 예수를 체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왕적 역할을 강조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당대의 정치 체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존재함을 나타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사건이 계획되고 있던 시기에, 베다니에 위치한 한 가정에서 마르다와 나사로의 자매인 마리아는 돌아가실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에 대한 사랑의 본질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후 겓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셨으며, 그곳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영적 전투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뇌의 원인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일시적으로 아버지께 버림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육신은 다가오는 육체적 고통과 씨름했으나, 그분의 영과 의지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되기까지 앞드렸을 때,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평온하게 그분의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는 다음날 아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서 유대의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의 사형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지도자들이 선고와 처형을 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 혐의가 로마 법정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근거로 '자신이 카이사르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며 정치적 고발

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져야 했지만, 끔찍한 채찍질로 몸이 쇠약해진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서는 큰 소리로 외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지성소가 일반 백성에게 열리게 되었으며, 이는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의 명예로운 회원이자 예수님을 은밀히 추종하는 자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여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무덤을 단단히 봉인하고 주변에 군인들을 배치했습니다.

한 주의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글로바의 아내일 가능성도 있으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일 가능성도 있음)가 무덤으로 향하던 중 큰 지진이 발생하였고, 천사가 내려와 무덤의 돌을 옮겼습니다. 여인들이 도착하자 천사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기록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후 지상에서의 40일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내용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전까지 선교 활동은 유대인들로 한정되었으나, 예수님은 그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의 끝날까지 자신의 백성과 항상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질문

1. 마태복음 26장 6-13절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장면을 읽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하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2.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거래했지만(마태복음 26:14-16), 나중에 깊이 후회하고 이를 되돌리려 했습니다(마태복음 27:3-10). 유다의 행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3.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유월절 절기의 두 가지 요소인 무교병 빵과 포도주 잔을 취하여 다가오는 죽음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마태복음 26:26-29). 예수님은 빵을 떼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잔의 내용물을 무엇으로 표현하셨습니까? 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4.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에 있는 겿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홀로 겪으

셨던 큰 내면적 투쟁의 본질을 설명하십시오.

5.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며 그리스도를 보호하려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행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6. 베드로가 종의 귀를 잘랐을 때는 매우 용감해 보였는데, 나중에 두 젊은 여인과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는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까요?

7.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을 외쳤던 군중 속의 사람들(마태복음 27:20-23)은 며칠 전에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8.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육체적 고통 외에 무엇을 견뎌야 했나요? 예수님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었는데도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9. 예수님의 부활(마태복음 28:1-7)이 복음의 중요한 요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예수님은 지상명령(마태복음 28:19-20) 당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결론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게 하셨을 때 완벽한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 본문

마태복음 26:1 – 28:20

요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태복음 26:28)

배경

역사적으로 이 시기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도 임명하였습니다. 가야바는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사위로서 대제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가야바는 대부분의 전임자들보다 더 오래, 18년 동안 대제사장을 지낸 것으로 보아 로마 당국과 원활하게 협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를 처형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제안한 인물은 가야바였으며, 그는 다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함께 예수를 체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왕적 역할을 강조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당대의 정치 체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존재함을 나타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사건이 계획되고 있던 시기에, 베다니에 위치한 한 가정에서 마르다와 나사로의 자매인 마리아는 돌아가실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에 대한 사랑의 본질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셨으며, 그곳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영적 전투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뇌의 원인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일시적으로 아버지께 버림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육신은 다가오는 육체적 고통과 씨름했으나, 그분의 영과 의지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되기까지 앞드렸을 때,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평온하게 그분의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는 다음날 아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서 유대의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의 사형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지도자들이 선고와 처형을 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 혐의가 로마 법정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근거로 '자신이 카이사르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며 정치적 고발

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져야 했지만, 끔찍한 채찍질로 몸이 쇠약해진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서는 큰 소리로 외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지성소가 일반 백성에게 열리게 되었으며, 이는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의 명예로운 회원이자 예수님을 은밀히 추종하는 자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여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무덤을 단단히 봉인하고 주변에 군인들을 배치했습니다.

한 주의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글로바의 아내일 가능성도 있으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일 가능성도 있음)가 무덤으로 향하던 중 큰 지진이 발생하였고, 천사가 내려와 무덤의 돌을 옮겼습니다. 여인들이 도착하자 천사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기록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후 지상에서의 40일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내용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전까지 선교 활동은 유대인들로 한정되었으나, 예수님은 그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의 끝날까지 자신의 백성과 항상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질문

1. 마태복음 26장 6-13절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장면을 읽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하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마태복음 26:1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한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 사랑과 경배는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해하십니다.
-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헌신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2.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거래했지만(마태복음 26:14-16), 나중에 깊이 후회하고 이를 되돌리려 했습니다(마태복음 27:3-10). 유다의 행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행동의 결과를 신중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탐욕은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저버리는 행위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잘못된 야망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다의 실패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나 충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3.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유월절 절기의 두 가지 요소인 무교병 빵과 포도주 잔을 취하여 다가오는 죽음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마태복음 26:26-29). 예수님은 빵을 떼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잔의 내용물을 무엇으로 표현하셨습니까? 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잔을 들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죄 사함은 동물의 희생으로 얻어졌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의 몸과 피를 바칠 때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은 인간의 죄를 위한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로 여겨집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요소에 신비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빵과 '포도나무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것들은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깊은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4.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에 있는 겿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홀로 겪으셨던 큰 내면적 투쟁의 본질을 설명하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곧 다가올 신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셨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세상의 죄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부담감에 직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류를 대신해 죄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고린도후서 5:21, 갈라디아서 3:13).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으로서, 예수님의 의로운 영혼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끔찍한 죄의 무게에 자연스럽게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5.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며 그리스도를 보호하려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행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

을까요?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판단으로 그리스도를 방어하려 했으나, 군인들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체포하지 않은 사실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어떻게 응답하시고 우리 삶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결정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절제와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6. 베드로가 종의 귀를 잘랐을 때는 매우 용감해 보였는데, 나중에 두 젊은 여인과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는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심사숙고하지 않은 채 행동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베드로와 떨어지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떨어진 고독과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은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에 적대적일 때, 또는 우리가 혼자 있고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진정한 상태가 드러날 것입니다.

7.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을 외쳤던 군중 속의 사람들(마태복음 27:20-23)은 며칠 전에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인기 있는 행동을 따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때로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특정 신앙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시작되면, 대중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소수의 헌신하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세속적인 지도자를 원했음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그러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8.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육체적 고통 외에 무엇을 견뎌야 했나요? 예수님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었는데도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죄를 바라볼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신 사실도 견디셔야 했습니다. 골고다를 둘러싼 물리적 어둠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짊어지셨을 때 겪으신 어둠을 상징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고 계셨으며, 인류 구원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9. 예수님의 부활(마태복음 28:1-7)이 복음의 중요한 요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신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 예수님은 지상명령(마태복음 28:19-20) 당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영의 일부를 받게 됩니다. 성결함을 받을 때는 그분이 더 큰 분량으로 임하시며,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채우고 우리 삶에 넘치도록 하십니다. 이는 매우 귀중한 은혜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게 하셨을 때 완벽한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우월성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 – 4:13

요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히브리서 1:8-9)

배경

히브리서의 저자로 일반적으로 바울이 지목되며, 그는 이 네 장에서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려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희생하여 자신들만의 예배 방식을 구축해 왔습니다. 저자는 서두의 세 구절에서 옛 종교(유대교)와 새 종교(기독교)가 모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종교임을 밝히며 이러한 혼란을 해소했습니다. 이후 그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 천사보다 뛰어나고(히브리서 1:4-2:18),
- 모세보다 위대하시며(히브리서 3:1-19),
- 더 나은 안식을 제공하십니다(히브리서 4:1-13).

이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최고 주체이며 완전히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13번 사용된 “~보다 나은”(better)이라는 주제는 첫 번째 장의 4절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저자는 구약의 제도와 신약의 은혜 사역을 대비시키며,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으며, 죄를 극복하고 그분께 오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천사가 매우 중요한 존재였는데, 이는 주로 천사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달하는 것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으며, 이 하늘의 존재를 숭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자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에, 천사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긴 구절로 시작했습니다. 이 구절은 다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첫째, 저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확인했습니다.
- 둘째, 그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것을 권면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그는 인간의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보다 우월한지 설명했습니다.

질문

1. 저자가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저자는 본문의 서두에서 시적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3절에 자세히 설명된 사실, 속성, 행동을 검토하고, 발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직접 작성해 보세요.
3. 천사는 하늘의 존재이며,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신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어떤 일곱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나요? (히브리서 1:3-14)
4. 2장의 처음 네 구절에서 저자는 영적 태만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왜 태만의 위험을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멀어지게 될까요?
5. 히브리서 2장 3-4절에서 삼위일체의 각 위격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확인하는 데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6.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해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으며, 구약성경의 처음 다섯 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3장에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두 사람에 대해 어떤 점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7. 저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조상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조상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3:7-11)
8.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히브리서 4:1-3)

9.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는 부분을 읽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론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성취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의 반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 – 4:13

요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히브리서 1:8-9)

배경

히브리서의 저자로 일반적으로 바울이 지목되며, 그는 이 네 장에서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려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희생하여 자신들만의 예배 방식을 구축해 왔습니다. 저자는 서두의 세 구절에서 옛 종교(유대교)와 새 종교(기독교)가 모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종교임을 밝히며 이러한 혼란을 해소했습니다. 이후 그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 천사보다 뛰어나고(히브리서 1:4-2:18),
- 모세보다 위대하시며(히브리서 3:1-19),
- 더 나은 안식을 제공하십니다(히브리서 4:1-13).

이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최고 주체이며 완전히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13번 사용된 “~보다 나은”(better)이라는 주제는 첫 번째 장의 4절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저자는 구약의 제도와 신약의 은혜 사역을 대비시키며,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으며, 죄를 극복하고 그분께 오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천사가 매우 중요한 존재였는데, 이는 주로 천사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달하는 것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으며, 이 하늘의 존재를 숭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자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에, 천사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긴 구절로 시작했습니다. 이 구절은 다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첫째, 저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확인했습니다.
- 둘째, 그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것을 권면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그는 인간의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보다 우월한지 설명했습니다.

질문

1. 저자가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 독자들이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제 1장에서 언급된 그의 성육신, 속죄, 영광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의 제사 제도보다 우월한 방법을 설명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논의해 보세요: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이 도전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2. 저자는 본문의 서두에서 시적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3절에 자세히 설명된 사실, 속성, 행동을 검토하고, 발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직접 작성해 보세요.

학생들이 생각을 나누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주의 상속자, 창조주, 신성한 영광의 광채, 우주를 유지하는 자, 죄로부터의 구원자, 고귀하신 분'이라는 그림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확장할 수 있는 다른 묘사적 문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치유자, 친구, 인도자, 살아있는 말씀, 선한 목자, 생명의 빵, 생수, 알파와 오메가 등)

3. 천사는 하늘의 존재이며,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신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어떤 일곱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나요? (히브리서 1:3-14)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요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4절).
- 예수님은 만아들이시므로 천사들이 경배해야 합니다(6절).
- 예수님은 영원한 보좌와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다(8절).
- 예수님은 기름부음을 받으셨으며, 동료들보다 뛰어나십니다(9절).
-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10절).
-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11-12절).
- 예수님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13절).

4. 2장의 처음 네 구절에서 저자는 영적 태만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왜 태만의 위험을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멀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분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메시지의 어떤 부분도 거부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생사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학생들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 토론할 때, 개인적인 헌신이나 정기적인 교회 참석을 소홀히 하거나, 우리가 믿는 바와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안주하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영적 유산을 과소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위험 영역을 발견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멀어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회복 단계를 권고할 수 있을지 질문해 보세요.

5. 히브리서 2장 3-4절에서 삼위일체의 각 위격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확인하는 데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증인들은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참됨을 입증하셨으며, 성령의 은사를 부여하셨습니다.

6.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해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으며, 구약성경의 처음 다섯 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3장에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두 사람에 대해 어떤 점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선지자이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으나,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졌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였으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모세는 죄 없이 태어나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두 인물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실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7. 저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조상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조상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3:7-11)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구출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보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를 꺼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며, 성령의 권고를 무시하지 않고 작은 속삭임까지 주의 깊게 들음으로써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8.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히브리서 4:1-3)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축복과 우리가 그분께 항복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적 안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더불어, 사람이 잘못된 마음과 불신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결과가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9.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는 부분을 읽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이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고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만(히브리서 4:13) 우리는 항상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을 드러내십니다.

결론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성취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의 반영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성경 본문

히브리서 4:14 - 10:39

요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히브리서 9:24)

배경

히브리서는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구약 율법에 의해 예표된 새 언약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초상화로 여겨져 왔습니다. 히브리 신자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로부터 가혹한 박해를 받았으며, 이러한 박해를 견뎌내면서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으나, 구약을 대체한 많은 유대인의 가르침과 관습으로 되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역할을 강조하면서, 구약의 제사장/왕인 멜기세덱의 역할과 비교하고 구약 율법에 따라 확립된 레위 제사장직과 대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 직분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레위의 후손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 사역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자는 제사장직과 왕권의 결합에 대한 더 이른 선례가 있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두 역할은 이스라엘에서 왕이 주어진 후 항상 분리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예루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나, 구약성경에는 그의 출생, 사망, 족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아브람을 축복했고, 아브람은 그에게 십일조를 바치며 그의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중보자라는 그리스어 'mes-ee-tace'는 '평화와 우정을 만들거나 회복하기 위해, 또는 계약을 맺거나 언약을 비준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질문

1.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제사장들의 의무는 무엇이었나요? (히브리서 5:1)
2. 히브리서 4장 15절과 5장 2, 8절은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저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 발전시켜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5장 11절에서 그는 계속하기 전에 다른 경고를 삽입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어떤 어려움을 언급했으며,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4. 히브리서 6장 4-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가장 엄중한 경고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어떤 위험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5. 6장 1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런 닻이 필요한가요?

6. 7장-10장은 각각 구약의 그림자 예보다 새 언약에서 '더 나은' 또는 '우월한' 것을 강조합니다. 각각을 나열하고 간단히 설명하세요.

7. 히브리서 10장 19-21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22-25절은 우리가 취해야 할 세 가지 행동을 제시합니다. 이를 나열하고 그 중요성을 설명하세요.

8. 우리는 진정으로 안전하신 유일한 분, 즉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37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인내심 있게 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위해 성취되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결론

우리는 하나님과의 중재자 및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삶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하고 안전하게 지키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원으로 인도해 줄 닻'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성경 본문

히브리서 4:14 - 10:39

요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히브리서 9:24)

배경

히브리서는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구약 율법에 의해 예표된 새 언약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초상화로 여겨져 왔습니다. 히브리 신자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로부터 가혹한 박해를 받았으며, 이러한 박해를 견뎌내면서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으나, 구약을 대체한 많은 유대인의 가르침과 관습으로 되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역할을 강조하면서, 구약의 제사장/왕인 멜기세덱의 역할과 비교하고 구약 율법에 따라 확립된 레위 제사장직과 대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 직분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레위의 후손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 사역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자는 제사장직과 왕권의 결합에 대한 더 이른 선례가 있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두 역할은 이스라엘에서 왕이 주어진 후 항상 분리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예루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나, 구약성경에는 그의 출생, 사망, 족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아브람을 축복했고, 아브람은 그에게 십일조를 바치며 그의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중보자라는 그리스어 'mes-ee-tace'는 '평화와 우정을 만들거나 회복하기 위해, 또는 계약을 맺거나 언약을 비준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질문

1.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제사장들의 의무는 무엇이었나요? (히브리서 5:1)

대제사장은 유대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사장의 주요 의무는 백성을 대신하여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하

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죄, 예배, 감사 등의 목적으로 드러졌으며 반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레위기에 설명된 제사장의 의무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론을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으며, 그의 후손들은 제사장직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매년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뒤에서 지성소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언약궤 위의 속죄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 제물은 자신의 죄와 유대 민족 전체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2. 히브리서 4장 15절과 5장 2, 8절은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고난을 겪으며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 완전히 동일시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함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공감과 이해를 가지신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히브리서 4:16). 학생들이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도록 노력하신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지도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접근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3. 저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 발전시켜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5장 11절에서 그는 계속하기 전에 다른 경고를 삽입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어떤 어려움을 언급했으며,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저자는 독자들을 '듣는 데 둔하다'고 표현합니다. 이 문구는 '둔한, 느린, 게으른, 무감각함'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합성어에서 번역된 말입니다. 듣는 데 둔하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냉담이나 무관심, 영적 분별력 부족,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는 무능력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독자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들어왔지만 삶에 적용하지 않은 기본적인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둔해지도록' 만들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을 여러분의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보세요.

4. 히브리서 6장 4-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가장 엄중한 경고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어떤 위험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은 기독교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배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배교와 이 구절에서 묘사된 상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성경은 배교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지는 것을 구분합니다. 잠시 멀어진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과 관계를 새롭게 한다면, 회

복할 수 있는 모든 희망이 존재합니다. 6절에 번역된 'if they fall away'(만일 그들이 타락한다면, 개역개정: 타락한 자들은)의 그리스어 표현은 더 정확하게 '떨어져 나간'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구절에서 묘사된 최종 단계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타락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배교하다'라는 뜻으로, 기독교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배교 상태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접근 수단을 거부하고, 자신이 취한 입장으로 인해 영원히 단절된 것입니다.

5. 6장 1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런 닻이 필요한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소망은 첫째, 하나님의 본질과 약속에 근거하고 있으며, 둘째, 예수님을 통해 접근 가능해진 하나님의 현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양이십니다. 학생들이 복음의 소망이 안전한 닻이 되어주었던 실제로 겪은 폭풍우를 공유하도록 유도하십시오.

6. 7장-10장은 각각 구약의 그림자 예보다 새 언약에서 '더 나은' 또는 '우월한' 것을 강조합니다. 각각을 나열하고 간단히 설명하세요.

7장 -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은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더 나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사역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서는 살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질서와 비교됩니다(창세기 14:17-24, 시편 110:4).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했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직(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견주어 볼 때 열등하다고 여겨집니다.

8장 - 그리스도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언약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 새 언약이 언급된 것과, 이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성취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일시적인 것으로 돌판에 기록되었고, 동물의 피로 인봉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영원하며,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었고, 예수의 보혈로 인봉되었습니다.

9장 - 하늘의 성소는 지상의 성소(성막/성전)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광야의 성막과 이후 예루살렘의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지어졌으며,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의 그림자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며, 이것이 장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0장 - 그리스도의 희생은 유대 율법에 따라 드리는 희생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번에 드러졌기 때문에 율법의 동물 희생보다 훨씬 뛰어나며, 완전한 제물이 드러졌을 때 죄를 없앨 수 없는 제사를 계속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네 장은 세부 사항으로 가득 차 있지만, 기본 전제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율법보다 더 나은 제사장직, 언약, 성소,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되셨습니다(8:5). 그분이 계실 때는 그분께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7. 히브리서 10장 19-21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22-25절은 우리가 취해야 할 세 가지 행동을 제시합니다. 이를 나열하고 그 중요성을 설명하세요.

가까이 가라 -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분리된 휘장이 제거되었으므로 가능해진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게 붙잡으라 -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과 신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실재와 성취를 경험한 우리는 공허한 의식과 예전의 본보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는 신실하게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서로를 고려하라 - 개인적인 신앙 경험 외에도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필요를 넘어 가족과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사랑의 본보기가 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연민을 보여줘야 합니다.

각 학생에게 종이 한 장을 주고 그들이 서로에게 다가가고, 굳건히 서며,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적으라고 하십시오. 이 종이를 가져가서 집이나 지갑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그들의 결심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8. 우리는 진정으로 안전하신 유일한 분, 즉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37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인내심 있게 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위해 성취되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 건강, 가족, 정부 등 다양한 대상에 신뢰를 두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유대인의 전통과 의식에 의존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를 회상하며 뒤돌아보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분의 언약이 인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확신을 지키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격려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순종하는 것은 중요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는지 몇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보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때때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탐구하도록 합니다.

결론

우리는 하나님과의 중재자 및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삶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하고 안전하게 지키며, 이 세상에서 우

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원으로 인도해 줄 닷'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권면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1 – 13:25

요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브리서 12:1-2)

배경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서기 7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들에게 과거의 경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도우셨던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을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세 장은 인류의 시작과 이 서신이 쓰여질 때까지의 교회 역사를 다룹니다. 저자는 교회 시대의 '큰 그림'을 제시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고 더 나은 경륜 하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권장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서신의 절정 부분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에 앞서, 그는 구약과 신약 경륜의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하며 두 경륜의 관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옛 경륜이 어떻게 사명을 완수했는지 보여준 후,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계획이 성취된 적절한 인물들을 열거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를 이루었습니다. 이 '증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최선에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등대 불빛처럼 빛났습니다.

12장은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를 비유로 들어 천국을 향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예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들이 단순히 즐거운 여행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깨워주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경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그들에게 인내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훈계했습니다.

질문

1. 히브리서 11장 1절을 자신의 말로 작성해 보세요. 그런 다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2. 히브리서 11장 2절은 믿음을 통해 '선진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선진이라는 용어는 이 장에서 언급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가리킵니다. 이 인물들은 어떻게 믿음을 입증했습니까?
3. '영적 거인'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영향을 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믿음과 안정을 얻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4. 핵심 구절을 고려하십시오.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5. 히브리서 12장 5절은 '주의 징계'에 대해 언급합니다. 징계는 즐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우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주의 징계와 관련하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격려를 주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 히브리서 12장 18~29절에서 무엇이 비교, 대조됩니까? 저자는 왜 이런 비교를 할까요?
7. 13장에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적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세 가지 지침을 나열하십시오. 오늘날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8. 저자는 '미혹하는 자들과 이상한 교훈'에 휩쓸리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히브리서 13:9). 오늘날 세상에서 복음의 순수한 메시지를 위협하는 교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론

구약의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은혜 시대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완전함을 받지 못한 채 신앙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수용하였습니다. 그들의 간증과 신앙의 모범을 통해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를 대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천국의 본향으로 향해 '햇불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권면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1 – 13:25

요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브리서 12:1-2)

배경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서기 7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들에게 과거의 경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도우셨던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을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세 장은 인류의 시작과 이 서신이 쓰여질 때까지의 교회 역사를 다룹니다. 저자는 교회 시대의 '큰 그림'을 제시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고 더 나은 경륜 하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권장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서신의 절정 부분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에 앞서, 그는 구약과 신약 경륜의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하며 두 경륜의 관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옛 경륜이 어떻게 사명을 완수했는지 보여준 후,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계획이 성취된 적절한 인물들을 열거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를 이루었습니다. 이 '증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최선에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등대 불빛처럼 빛났습니다.

12장은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를 비유로 들어 천국을 향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예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들이 단순히 즐거운 여행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깨워주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경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그들에게 인내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훈계했습니다.

질문

1. 히브리서 11장 1절을 자신의 말로 작성해 보세요. 그런 다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칠판에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을 나열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등 스위치를 켜기 = 전기에 대한 신뢰
- 자동차 시동 걸기 = 자동차가 작동할 것이라는 신뢰
- 비행기 탑승 = 기류, 강력한 엔진 또는 조종사에 대한 신뢰
- 엘리베이터 이용 = 유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그분이 살아 계시고 우리의 삶에서 활동하신다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의 순간, 마약으로부터의 즉각적인 해방, 치유, 자연의 경이로움 등을 통해 창조주를 느낄 수 있는 예들을 들어 다른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히브리서 11장 2절은 믿음을 통해 '선진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선진이라는 용어는 이 장에서 언급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가리킵니다. 이 인물들은 어떻게 믿음을 입증했습니까?

그들은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신앙의 영웅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 행위로서 믿음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말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해보세요. 이 장에서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고, 그들이 신념에 따라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건설함으로써 자신과 그의 가족을 홍수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때때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그 행위에 보답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위험해 보이는' 믿음의 실천이 하나님의 보상을 가져다주는 상황을 학생들에게 제시해보세요.

3. '영적 거인'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영향을 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믿음과 안정을 얻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영적 거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모습을 지니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주세요. 그들 역시 하나님께 결과를 구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을 추구하며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십시오. 하나님께 결과를 원할 때, 우리는 신실함과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우리의 개인 생활, 취미, 행동, 우선순위, 사랑 등과 관련하여 성령에 더욱 민감해지는 것이 포함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단계들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영적

거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승인과 축복을 바라고 그 단계를 밟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더 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결과를 원한다면 쉬운 일이 아닌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핵심 구절을 고려하십시오.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들은 방해 요소의 무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접하는 시각적 또는 청각적 정보, 소유물, 지위, 명성, 취미, 그리고 타인의 의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이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우리를 쉽게 사로잡는 익숙한 사소한 것들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경주를 뛰기 위해 무거운 옷을 벗듯이,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매우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5. 히브리서 12장 5절은 '주의 징계'에 대해 언급합니다. 징계는 즐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우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주의 징계와 관련하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격려를 주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자는 징계를 받는 것이 즐겁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므로 이를 경멸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늘의 아버지이시기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젠가는 징계와 훈계를 받게 되는데(8절), 이는 그리스도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수업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나 설교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징계를 받을 때 약속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10절), 우리 삶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자라게 될 것(11절)입니다. 학생들은 징계의 유익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계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6. 히브리서 12장 18~29절에서 무엇이 비교, 대조됩니까? 저자는 왜 이런 비교를 할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율법과 구약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약 시대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모세를 거부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던 것처럼,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시내산의 경험이 아무리 위대하고 강력하며, 율법을 주신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시온산, 새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대조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그분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한 민감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해보세요.

7. 13장에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적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세 가지 지침을 나열하십시오. 오늘날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목록을 만드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절 -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라.

2절 - 친절하게 대하라.

3절 - 고통받는 사람을 도우라.

4절 - 배우자에게 진실하라.

5절 - 만족하라.

6절 -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으라.

7절 - 영적 인도자를 따르라.

목록을 작성한 후, 이러한 구절들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토론하십시오.

8. 저자는 '미혹하는 자들과 이상한 교훈'에 휩쓸리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히브리서 13:9). 오늘날 세상에서 복음의 순수한 메시지를 위협하는 교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진화론, 우리 모두가 매일 죄를 짓는다는 것, 간음과 동성 결혼 허용 등 몇 가지 거짓 교리를 나열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마음을 은혜로써 굳게'하라는 훈계에 대해 토론하도록 유도하세요. 우리가 참된 교리를 알고 그 안에 확고히 서 있다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새롭고 이상한 교리에 휩쓸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짓 교리를 알기 위해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할 수도 있지만, 가품을 가려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품에 완전히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은 사라질 것입니다.

결론

구약의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은혜 시대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완전함을 받지 못한 채 신앙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수용하였습니다. 그들의 간증과 신앙의 모범을 통해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를 대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천국의 본향으로 향해 '촛불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성경 본문

에베소서 1:1 – 6:24

요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1)

배경

에베소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시리아의 안디옥과 함께 중요한 전략적 항구였습니다. 현재 튀르키예의 이즈미르 인근 소아시아 서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당시 로마에서 동방으로 가는 주요 경로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에게해 항구였습니다. 에베소는 종교 중심지이기도 했으며, 그리스인들에게 아르테미스라고도 알려진 다이아나(로마의 여신) 신전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지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대규모 국제 관광 중심지였으며, 매우 수익성이 높아서 통치자들은 최초의 세계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인구는 약 30만 명으로, 로마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약 17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동료 선교사 두 명이 몇 달 동안 기초를 닦은 후 바울이 도착하여 전도 본부를 세웠습니다. 그는 함께 데려온 동료들과 이미 에베소에 있던 몇몇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가정 교회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직망은 결국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의 첫 개종자들은 유대인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을 경배하고 싶지만 자신의 문화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거나 할례 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유대인의 용어입니다. 새로운 개종자들은 대개 중산층 출신으로, 진리와 안정을 추구했지만 생활 방식과 태도를 완전히 바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면 자녀, 아내, 노예, 손님도 함께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갓 시작한 교회는 개별 가정으로 세워졌고, 가장 부유한 구성원 중 한 명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일부 가정은 분리되어 다른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의 초대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팀은 에베소에서 2년 반 이상을 보내며 개종자를 확보하고 지도자를 훈련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바울이 AD 60~62년 사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쓰여졌으며, 두기

고와 함께 에베소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과 달리, 이 편지는 교회의 어떤 특별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강화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또한 같은 목적으로 그 지역의 다른 교회에도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교회의 본질과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으로 기능하도록 도전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세 장은 교리(교회의 소명)를 다루고, 마지막 세 장은 적용(교회의 실천)을 다룹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주제는 신자들의 연합입니다.

1장에서 바울은 교회가 지혜와 계시가 있기를 바라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의 개인적, 공동체적 위치와 소명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믿음이 강화되기를 기도하며 마무리했습니다.

4장은 이 책의 중추적인 부분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마지막 세 장만해도 신자가 자신의 개인적 부르심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에 대해 35개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4장과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연합, 거룩함, 사랑, 빛, 지혜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6장에서는 신자들에게 영적 전쟁을 견뎌내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며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는 성경의 교리를 알고 세상 앞에서 그 교리를 실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는 불신자들이 이끌리는 강한 교회입니다.

질문

1. 바울은 에베소서 1장 첫 구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로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2.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모든 영적 축복을 주셨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몇 가지 영적 축복을 나열해 보십시오. 가장 큰 영적 축복은 무엇입니까? 목록을 작성한 후, 이러한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3. 에베소서 1장 7절과 에베소서 2장 13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줍니까?
4.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는 것을 읽습니다.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벽이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벽'은 무엇일까요?

5.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나오는 신자의 마음 속 첫 생각부터 우리 삶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에 이르기까지의 진행 과정을 설명해보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6. 4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7. 에베소서 4장 11절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신자들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 서술합니다. 각 은사를 나열하고, 그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함께 서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8.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9.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야 한다'고 읽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나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 얼마나 끈기를 보였나요? 기도 시간의 이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결론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큰 특권이며 격려를 받는 일입니다. 다른 신자들과 함께 하는 여정에서는 개인의 신앙 생활에 충실하며 기도 생활을 꾸준히 유지하고, 신자들 간의 연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양한 영적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성경 본문

에베소서 1:1 – 6:24

요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1)

배경

에베소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시리아의 안디옥과 함께 중요한 전략적 항구였습니다. 현재 튀르키예의 이즈미르 인근 소아시아 서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당시 로마에서 동방으로 가는 주요 경로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에게해 항구였습니다. 에베소는 종교 중심지이기도 했으며, 그리스인들에게 아르테미스라고도 알려진 다이아나(로마의 여신) 신전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지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대규모 국제 관광 중심지였으며, 매우 수익성이 높아서 통치자들은 최초의 세계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인구는 약 30만 명으로, 로마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약 17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동료 선교사 두 명이 몇 달 동안 기초를 닦은 후 바울이 도착하여 전도 본부를 세웠습니다. 그는 함께 데려온 동료들과 이미 에베소에 있던 몇몇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가정 교회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직망은 결국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의 첫 개종자들은 유대인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을 경배하고 싶지만 자신의 문화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거나 할례 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유대인의 용어입니다. 새로운 개종자들은 대개 중산층 출신으로, 진리와 안정을 추구했지만 생활 방식과 태도를 완전히 바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면 자녀, 아내, 노예, 손님도 함께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갓 시작한 교회는 개별 가정으로 세워졌고, 가장 부유한 구성원 중 한 명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일부 가정은 분리되어 다른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의 초대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팀은 에베소에서 2년 반 이상을 보내며 개종자를 확보하고 지도자를 훈련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바울이 AD 60~62년 사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쓰여졌으며, 두기

고와 함께 에베소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과 달리, 이 편지는 교회의 어떤 특별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강화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또한 같은 목적으로 그 지역의 다른 교회에도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교회의 본질과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으로 기능하도록 도전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세 장은 교리(교회의 소명)를 다루고, 마지막 세 장은 적용(교회의 실천)을 다룹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주제는 신자들의 연합입니다.

1장에서 바울은 교회가 지혜와 계시가 있기를 바라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의 개인적, 공동체적 위치와 소명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믿음이 강화되기를 기도하며 마무리했습니다.

4장은 이 책의 중추적인 부분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마지막 세 장만해도 신자가 자신의 개인적 부르심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에 대해 35개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4장과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연합, 거룩함, 사랑, 빛, 지혜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6장에서는 신자들에게 영적 전쟁을 견뎌내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며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는 성경의 교리를 알고 세상 앞에서 그 교리를 실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는 불신자들이 이끌리는 강한 교회입니다.

질문

1. 바울은 에베소서 1장 첫 구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로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신실함은 매우 뛰어난 평판입니다. 이러한 수식어는 모든 신자에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매일 헌신하는 모습, 인생의 어려운 시기뿐만 아니라 좋은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그리고 '작은 일'에도 일관성 있게 임하는 태도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을 반원들의 연령, 영적 성숙도 등에 맞추어 확장하십시오.

2.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모든 영적 축복을 주셨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몇 가지 영적 축복을 나열해 보십시오. 가장 큰 영적 축복은 무엇입니까? 목록을 작성한 후, 이러한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학생들과 함께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언급한 축복을 검토해 보십시오. 목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속받았으며, 그 피가 우리에게 영생을 제공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줍니다. 이러한 축복이 신자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법을 논의하십시오.

3. 에베소서 1장 7절과 에베소서 2장 13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줍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받았음을 설명하며, 에베소서 2장 13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음을 언급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 장벽을 허물고, 죄로부터 구원을 제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 수 있습니다. '보혈을 간구한다'는 말의 의미와 그 방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보혈'이 그들의 삶에서 도움이 되었던 사례를 나누도록 요청하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4.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는 것을 읽습니다.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벽이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참된 연합을 방해하는 어떤 장벽도 원치 않으십니다. 이러한 장벽은 신체적, 인종적, 사회경제적, 정치적, 연령, 성별, 외모 등의 장벽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받은 감정이나 기타 범죄로 인한 분열의 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질 책임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에게 가서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5.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나오는 신자의 마음 속 첫 생각부터 우리 삶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에 이르기까지의 진행 과정을 설명해보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구하고, 받은 다음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받은 것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십니다. "능히 하실"이라는 단어를 확장해보면 전능한, 무한한, 한계 없는, 영원한 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구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 온전히 역사할 수 있습니다.

6. 4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학생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에서 겸손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연합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노력입니다 (3절). 노력에 대한 그리스어 단어인 'spoudazo'(스뿌다조)는 '속도를 내다, 애쓰다, 진지하다(부지런히 일하다), 수고하다'를 의미합니다. 이는 연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신자들 사이에서 일치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7. 에베소서 4장 11절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신자들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 서술합니다. 각 은사를 나열하고, 그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함께 서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
- 선지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
- 복음 전하는 자(전도자): 개종자를 얻기 위한 선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함
- 목사: 개종자를 인도하기 위함
- 교사: 개종자를 가르치기 위함

학생들과 이러한 은사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지 토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며), 섬기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하기(세워나가기) 위해 이러한 은사를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의 일치에 도달하여 다양한 교리적 혼란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12-16절).

8.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2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또한 애정을 넘어서 자기희생적인 섬김의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이러한 사랑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9.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야 한다'고 읽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나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 얼마나 끈기를 보였나요? 기도 시간의 이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보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항상 눈을 감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하루 종일 기도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필요를 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많이 생각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승리와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유익을 얻습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신자들 사이에 새로운 일체감이 형성됩니다. 우리 삶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기도 일기, 메모 카드, 기도 목록 등이 있으며,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큰 특권이며 격려를 받는 일입니다. 다른 신자들과 함께 하는 여정에서는 개인의 신앙 생활에 충실하며 기도 생활을 꾸준히 유지하고, 신자들 간의 연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양한 영적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성경 본문

빌립보서 1:1 – 4:23

요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립보서 3:13-14)

배경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현재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북부 고속도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금광으로 유명한 이곳은 바울이 살아 있는 동안 중요한 로마 도시이자 군사 항구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최초의 유럽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실라, 누가의 도움을 받아 AD 51년경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환상을 보여 준 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로 갔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방인 의사인 누가가 교회 설립 초기 6년 동안 이 교회의 목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설립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던 로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교회가 설립된 지 약 10년이 지나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를 방문한 지 3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이 편지의 개인적이고 애정 어린 어조는 그가 교회와 그 구성원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기록된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 여러 차례 헌금을 보내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는 사도와 빌립보 교회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 신뢰와 우정을 반영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보낸 선물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연락이 끊겨 자신이 잊혀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의 일원 에바브로디도가 교회에서 보낸 선물과 메시지를 가지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발견하고 한 동안 로마에 머물며 그를 도왔습니다. 바울이 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는 예정보다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자 바울은 감사 편지와 함께 그의 도움에 대한 칭찬을 담아 그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외에도 빌립보 교회에 믿음을 지키고 기쁨을 유지하며 겸손을 기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의 두 가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분명히 교회 내에는 율법과 할례와 관련된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이 '행악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빌립보의 가정 교회 지도자였던 두 여성, 유오디아와 순두게에게 개인적인 논쟁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교회(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라고 격려하면서 편지를 마쳤습니다.

질문

1. 대부분의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에는 격려의 말과 함께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와 영적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왜 그가 인사말에 이러한 것들을 포함시켰을까요?
2.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당시, 그는 로마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박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12-18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투옥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3.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바울의 관점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4.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태도의 궁극적인 모범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했습니다. 2-15절에서 발견되는 자질을 나열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까? 15절에 따르면, 그러한 태도에 대한 영적 보상은 무엇입니까?
5. 2장 19-30절에서 바울은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일꾼이 부족한 것을 한탄하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신실함을 칭찬했습니다. 효과적인 그리스도인 일꾼에게 필요한 자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6. 3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바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것보다 권력과 돈에 더 관심이 있고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짓 선생과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경계할 수 있을까요?

7. 바울은 3장 9-21절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고백을 기록하며, 독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좇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태도를 본받으라고 격려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시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뜻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까?

8. 4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해 봅시다.

9. 4장 13절에서 바울은 겸손과 순종을 기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결론

바울은 생의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며 그리스도께 계속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도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겸손하게 생활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성경 본문

빌립보서 1:1 – 4:23

요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립보서 3:13-14)

배경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현재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북부 고속도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금광으로 유명한 이곳은 바울이 살아 있는 동안 중요한 로마 도시이자 군사 항구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최초의 유럽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실라, 누가의 도움을 받아 AD 51년경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환상을 보여 준 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로 갔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방인 의사인 누가가 교회 설립 초기 6년 동안 이 교회의 목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설립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던 로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교회가 설립된 지 약 10년이 지나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를 방문한 지 3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이 편지의 개인적이고 애정 어린 어조는 그가 교회와 그 구성원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기록된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 여러 차례 헌금을 보내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는 사도와 빌립보 교회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 신뢰와 우정을 반영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보낸 선물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연락이 끊겨 자신이 잊혀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의 일원 에바브로디도가 교회에서 보낸 선물과 메시지를 가지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발견하고 한 동안 로마에 머물며 그를 도왔습니다. 바울이 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는 예정보다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자 바울은 감사 편지와 함께 그의 도움에 대한 칭찬을 담아 그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외에도 빌립보 교회에 믿음을 지키고 기쁨을 유지하며 겸손을 기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의 두 가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분명히 교회 내에는 율법과 할례와 관련된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이 '행악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빌립보의 가정 교회 지도자였던 두 여성, 유오디아와 순두게에게 개인적인 논쟁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교회(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라고 격려하면서 편지를 마쳤습니다.

질문

1. 대부분의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에는 격려의 말과 함께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와 영적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왜 그가 인사말에 이러한 것들을 포함시켰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장을 계속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이 지식, 판단력, 의로움, 성실함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며,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즉, 올바른 판단력과 그리스도 및 교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그리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편지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적 모습을 제시하여 그들이 자신의 삶을 본받도록 모범을 보였습니다.

2.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당시, 그는 로마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박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12-18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투옥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투옥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죄수로서의 바울의 신분은 그가 다른 방법으로는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다른 기독교인들도 그의 모범을 보고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 로마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3.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바울의 관점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어려운 상황을 통해 우리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시련의 시기에 우리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긍정적 태

도를 자신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및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은 관계로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이 질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1장 19-26절에서 관련된 딜레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고 싶었지만,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육신에 머무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천국에서 자신의 상을 기꺼이 미루고 이 땅에 머물며 봉사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그의 겸손과 헌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4.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태도의 궁극적인 모범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했습니다. 2-15절에서 발견되는 자질을 나열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까? 15절에 따르면, 그러한 태도에 대한 영적 보상은 무엇입니까?

나열된 자질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겸손, 순종, 하나된 마음,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사랑, 성결한 삶,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타인을 위한 봉사, 불평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다투지 않는 것 등. 우리는 기도와 깨어있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 보상은 경쟁적인 '나 우선주의' 문화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2장 19-30절에서 바울은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일꾼이 부족한 것을 한탄하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신실함을 칭찬했습니다. 효과적인 그리스도인 일꾼에게 필요한 자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토론할 때 학생들이 언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경 읽기 및 교회 출석과 같은 일에 충실한 사람, 의무를 다하는 데 믿음직스럽고 충실한 사람, 규율을 지키는 사람,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

6. 3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바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것보다 권력과 돈에 더 관심이 있고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짓 선생과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경계할 수 있을까요?

거짓 교사와 영적 지도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진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거짓된 주장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며, 교사들과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하나님과 그의 본성에 대한 지식과 비교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상세히 조사하고 하나님께 진리를 보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바울은 3장 9-21절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고백을 기록하며, 독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좇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태도를 본받으라고 격려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시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뜻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학생들은 기도를 통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식함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의 삶에 대한 뜻을 신실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보기에 포기하기 어려운 일을 포기하라고 부르실 수도 있지만, 일단 포기하면 이전보다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하늘에서 기다리는 보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8. 4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해 봅시다.

수업 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기쁨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4절),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5절),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는 것(6절),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7절), 긍정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것(8절),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충실한 사람들을 따르는 것(9절),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11절) 등.

9. 4장 13절에서 바울은 겸손과 순종을 기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도록 허용할 때, 필요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온 개인적인 예를 나누도록 요청하세요.

결론

바울은 생의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며 그리스도께 계속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도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겸손하게 생활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성경 본문

골로새서 1:1 – 4:18

요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로새서 2:6-7)

배경

골로새는 현재 소아시아의 튀르키예 일부인 프리기아 파카티아나의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사이에 위치하고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이 고대 도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골로새는 1,800년 이상 유실된 도시로, 지진으로 인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뿐만 아니라 골로새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골로새 대신 세워진 도시는 코노스라고 불렸고 오늘날에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에베소 서신과 거의 같은 시기인 AD 60년경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 중 하나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아마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교회를 방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서신에서 사도가 언급한 골로새 교인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이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둘 다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논쟁했던 문제는 초기 단계의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창조된 존재로서 인간보다 크지만 하나님보다 작다고 가르쳤으며, 따라서 갈보리에서의 그의 속죄 사역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구원은 지식을 통해 얻어진다고 주장했으며, 육체는 본래 약하다고 믿었습니다.

질문

1. 골로새 교회의 목사는 누구였으며, 바울은 그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바울의 말은 그의 어떤 자질을 말해줍니까? (골로새서 1:7)
2. 바울은 골로새 신자들을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들을 위해 신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1

장 9-12절에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기도의 영역은 무엇인가요?

3.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바울은 이 서신에서 그들의 우려를 해결했습니다. 바울이 다음의 거짓 믿음을 각각 어떻게 반박했는지 요약해 보세요.

4. 바울은 1장 24절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견디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고난'을 받도록 부름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나열해보세요. 인내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5. 그리스도의 중요성과 탁월함을 확립한 바울은 2장에서 경고를 하기 위해 계속 나아갑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에 대해 경고했나요?(4, 8, 18절 참조) 그의 경고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요?

6. 2장은 골로새에 있는 영지주의 교사들의 율법주의적 가르침의 위험성을 다룹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정결하거나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된 고기와 음료의 구별과 초하루 및 특정 안식일과 같은 성일이나 축제를 지켜야 하는 의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규칙들로부터 해방시키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유대 전통에 복종할 필요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러한 모든 규정들은 제거되었고, 더 이상 도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규정들이 신자들을 어떻게 속였을까요?

7. 바울은 처음 두 장에서 교리적, 신학적 기초를 다진 후, 3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방금 들은 메시지를 실천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골로새서 3:2에서 바울의 훈계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8. 골로새서 4:5-6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를 대하는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바울이 다음 구절에서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결론

바울의 서신은 초기 교회 신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며,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시대를 초월한 훌륭한 지침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 그리스도를 '신격의 충만함'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원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성경 본문

골로새서 1:1 – 4:18

요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로새서 2:6-7)

배경

골로새는 현재 소아시아의 튀르키예 일부인 프리기아 파카티아나의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사이에 위치하고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이 고대 도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골로새는 1,800년 이상 유실된 도시로, 지진으로 인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뿐만 아니라 골로새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골로새 대신 세워진 도시는 코노스라고 불렸고 오늘날에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에베소 서신과 거의 같은 시기인 AD 60년경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 중 하나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아마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교회를 방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서신에서 사도가 언급한 골로새 교인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이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둘 다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논쟁했던 문제는 초기 단계의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창조된 존재로서 인간보다 크지만 하나님보다 작다고 가르쳤으며, 따라서 갈보리에서의 그의 속죄 사역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구원은 지식을 통해 얻어진다고 주장했으며, 육체는 본래 약하다고 믿었습니다.

질문

1. 골로새 교회의 목사는 누구였으며, 바울은 그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바울의 말은 그의 어떤 자질을 말해줍니까? (골로새서 1:7)

바울은 에바브라(목사)를 동료이며 충실한 사역자로 묘사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신실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신뢰할 만한, 진실한, 확실한'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에바브라는 로마를 방문

하여 그곳에 있는 동안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단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를 계기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라는 빌레몬서 1장 23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2. 바울은 골로새 신자들을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들을 위해 신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12절에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기도의 영역은 무엇인가요?

답변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와 영적 이해를 얻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공경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인내하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3.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바울은 이 서신에서 그들의 우려를 해결했습니다. 바울이 다음의 거짓 믿음을 각각 어떻게 반박했는지 요약해 보세요.

학생들이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단을 반박하는 구절에 대한 요약을 공유할 시간을 주세요. 다음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 될 수 없다. (골로새서 1:15)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닮은 것 이상으로 아버지의 현현이셨습니다. 성육신에서 삼위일체 신격의 일부인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게 되었고, 신성은 이제 인성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첫 번째 피조물이 아니라 만아들이셨습니다.

-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골로새서 1:16-17)

전치사 'by(개역개정: ~에게서)'는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신성한 행위자였음을 나타냅니다. 전치사 'for(개역개정: 위하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용과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스어 단어 'created(개역개정: 창조되었고)'의 시제는 창조가 확실하고 역사적이며 완성된 작업이었음을 나타냅니다.

-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아니었다. (골로새서 1:18-20)

18절의 'He(개역개정: 그)'라는 단어는 강조적입니다. 신격을 대표하는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제하고, 인도하며, 다스립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이자 생명입니다.

- 그리스도는 구원의 근원이 아니다. (골로새서 1:20-22)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4. 바울은 1장 24절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견디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고난'을 받도록 부름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나열해보세요. 인내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신자들이 박해와 죽음을 직면할 수 있음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평화로운 환경에서도 조롱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안내할 때 얻는 혜택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예시로는 믿음의 강화, 불신자들에 대한 증거 제공, 고통 받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 그리고 영원한 보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고한 기독교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설득력 있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즉각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후속 결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5. 그리스도의 중요성과 탁월함을 확립한 바울은 2장에서 경고를 하기 위해 계속 나아갑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에 대해 경고했나요?(4, 8, 18절 참조) 그의 경고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뿌리를 둔 거짓 가르침이나 세상 철학에 현혹될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특정한 거짓 가르침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으나,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인간의 철학이나 노력으로 관심을 돌리는 종교적 경향이나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6. 2장은 골로새에 있는 영지주의 교사들의 율법주의적 가르침의 위험성을 다룹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정결하거나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된 고기와 음료의 구별과 초하루 및 특정 안식일과 같은 성일이나 축제를 지켜야 하는 의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규칙들로부터 해방시키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유대 전통에 복종할 필요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러한 모든 규정들은 제거되었고, 더 이상 도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규정들이 신자들을 어떻게 속였을까요?

골로새 교인들은 종교적 관습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자신의 의로움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7. 바울은 처음 두 장에서 교리적, 신학적 기초를 다진 후, 3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방금 들은 메시지를 실천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골로새서 3:2에서 바울의 훈계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학급과 함께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제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기울이기.
- 관찰한 필요에 응답하기.
-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

- 물질적 소유와 부는 영적인 가치보다 부차적이라는 관점을 가지기.

8. 골로새서 4:5-6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를 대하는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바울이 다음 구절에서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학생들과 토론에서 나온 생각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혜로 행하라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잃어버린 자를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 세월을 아끼라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의 말은 은혜롭고 유쾌하며 생동감이 있어야 합니다. 적절할 때 순수함과 건전함, 매운맛이 느껴져야 합니다.

-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상황에 맞게 메시지를 조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절히 말해야 합니다.

결론

바울의 서신은 초기 교회 신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며,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시대를 초월한 훌륭한 지침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 그리스도를 '신격의 충만함'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원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첫번째 편지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1 – 5:28

요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데살로니가전서 4:16-17)

배경

바울은 AD 50년 또는 51년에 고린도에 있는 동안 데살로니가전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 서신은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바울 서신 중 첫 번째 서신으로 여겨지며, 신약성경 중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AD 49년에 그의 2차 선교 여행 중 마케도니아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 달라는 환상을 보고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그 부름에 응하여 에게해를 건너 빌립보의 나폴리로 이동한 후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몇 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곳에 세워진 교회는 유럽 대륙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바울의 활동 근거지는 회당이었지만 (사도행전 17:2), 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새로 온 신자들의 신앙이 알려지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화가 났으며, 바울과 그의 동료 실라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베뢰아로 도피했으나, 당국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대접했던 야손을 체포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바울이 베뢰아에서 설교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도시로 가서 폭동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탈출하여 아테네로 향한 후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서둘러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 그 도시의 새로운 신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어 어린 교회의 상태를 확인하게 했으며, 디모데는 긍정적인 보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에 바울은 새로운 교회에 개인적인 서신인 데살로니가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서신에서 그는 신자들의 신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격려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였으며,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시켰습니다.

질문

1. 바울과 실라가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데살로니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다른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까?
2.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우리는 복음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능력과 성령으로' 전해졌다고 읽습니다. 이는 복음이 그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구원받은 이후로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미친 네 가지 구체적인 영향을 나열해 보십시오.
3.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라고 썼습니다.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4. 바울이 3장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낸 세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합니까?
5.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6. 바울이 인식한 중요한 교리적 문제 중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주요 신학적 강조로 이어졌습니다. 어린 교회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 교인들 중 몇몇이 사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은 사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4장과 5장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긴 신자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7절에 따르면, 주님의 재림의 사건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7.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교회를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언급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과 어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것이 적절한 비유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8.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는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어로 권면이라는 단어는 '가르치거나 모범을 보임으로써 영적 성장을 도모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동행을 되돌아보고, 다른 신자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권면하고 덕을 세웠는지 다섯 가지 방법을 적어보세요.
9. 바울은 마지막 말씀에서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권고를 했습니다. 5장 15-22절에서 나오는 지침을 의역하고, 오늘날 그 지침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 설명하세요.

결론

주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날이 올 때 아무도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첫번째 편지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1 – 5:28

요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데살로니가전서 4:16-17)

배경

바울은 AD 50년 또는 51년에 고린도에 있는 동안 데살로니가전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 서신은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바울 서신 중 첫 번째 서신으로 여겨지며, 신약성경 중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AD 49년에 그의 2차 선교 여행 중 마케도니아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 달라는 환상을 보고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그 부름에 응하여 에게해를 건너 빌립보의 나폴리로 이동한 후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몇 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곳에 세워진 교회는 유럽 대륙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바울의 활동 근거지는 회당이었지만 (사도행전 17:2), 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새로 온 신자들의 신앙이 알려지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화가 났으며, 바울과 그의 동료 실라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베뢰아로 도피했으나, 당국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대접했던 야손을 체포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바울이 베뢰아에서 설교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도시로 가서 폭동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탈출하여 아테네로 향한 후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서둘러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 그 도시의 새로운 신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어 어린 교회의 상태를 확인하게 했으며, 디모데는 긍정적인 보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에 바울은 새로운 교회에 개인적인 서신인 데살로니가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서신에서 그는 신자들의 신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격려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였으며,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시켰습니다.

질문

1. 바울과 실라가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데살로니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다른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까?

1장 6-8절에 따르면, 데살로니가인들은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바울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학생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증거를 보였다는 것을 답할 수 있습니다(3절). 그들은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6절) 여전히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한 다른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8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을 공동체로 환영하며,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9절).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였습니다(10절).

10절에서 사용된 '기다리다'는 단어는 그리스어 '아나메노(anameno)'에서 유래한 것으로, 단순히 참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대하고 확신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약성경의 메시아적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의 태도를 묘사합니다.

2.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우리는 복음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능력과 성령으로' 전해졌다고 읽습니다. 이는 복음이 그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구원받은 이후로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미친 네 가지 구체적인 영향을 나열해 보십시오.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변화를 나열하거나 말로 간증하도록 격려하십시오. 복음이 한 사람에게 닿을 때마다 부인할 수 없는 유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그 사람은 자신이 들은 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삶이 변화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13도 참조하십시오.

3.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라고 썼습니다.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크게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책임을 특권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청지기로 여겼으며, 그가 전파한 복음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에 그의 주된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4. 바울이 3장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낸 세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합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2절): '세우다'라는 단어는 '안정시키다' 또는 이미 존재하는 구조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2절): '위로하다'라는 단어는 슬픔에 잠긴 이들을 돌본다는 의미보다는 '격려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탄의 유혹에서 살아남고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5절).

오늘날 복음의 사역자들도 신자들을 안정시키고, 지원하며 믿음 안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사탄의 유혹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섬김으로써 이를 수행합니다.

5.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구절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직접 계시를 받았거나 사도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전승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가르침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접 보내신 신성한 계시입니다. 이는 바울이 권위 있는 선포를 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6. 바울이 인식한 중요한 교리적 문제 중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주요 신학적 강조로 이어졌습니다. 어린 교회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 교인들 중 몇몇이 사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은 사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4장과 5장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긴 신자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7절에 따르면, 주님의 재림의 사건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죽은 신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할 것이며, 살아있는 신자들은 공중에서 그들과 재회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리는 초기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이 사건의 순서를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교회를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언급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과 어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것이 적절한 비유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 영적 어둠이 아닌 참된 복음의 영적 빛 가운데서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인들은 구원을 위해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토론을 통해 빛은 사물을 비추고 명확하게 하는 반면 어둠은 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은 유익하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활력을 주는 반면, 어둠은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난 데살로니가인들은 참으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었습니다.

8.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는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어

로 권면이라는 단어는 '가르치거나 모범을 보임으로써 영적 성장을 도모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동행을 되돌아보고, 다른 신자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권면하고 덕을 세웠는지 다섯 가지 방법을 적어보세요.

이 질문은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에서 권면과 덕이라는 단어는 둘 다 그리스어로 현재 시제로, 신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야 할 지속적인 의무를 암시합니다. 이는 교회에서 교제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9. 바울은 마지막 말씀에서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권고를 했습니다. 5장 15-22절에서 나오는 지침을 의역하고, 오늘날 그 지침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 설명하세요.

15절: 복수를 삼가십시오. 불친절함에 대해 복수하거나 보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16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십시오.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17절: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하십시오.

19절: 하나님의 영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근심하게 하거나 방해하지 마십시오.

20절: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의 사역과 메시지를 존중하십시오.

21절: 지혜롭게 판단하여 옳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듣는 모든 것을 살피고 진실한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22절: 악을 멀리하십시오. 유혹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는 상황을 피하십시오.

결론

주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날이 올 때 아무도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두번째 편지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1:1 – 3:18

요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데살로니가후서 2:15)

배경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는 중요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동방을 잇는 주요 도로에 위치해 번성하는 항구였으며, 바울은 AD 50년경에 2차 선교여행 중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설교를 한 후 교회를 세웠습니다(사도행전 17장). 2년도 채 되지 않아 바울은 새로운 교회에 편지를 통해 신자들을 격려하고 주님의 재림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조언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그 편지를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일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오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한 이들은 일을 그만두고 기다리기만 했습니다(데살로니가후서 3:11). 또한 교회에 대한 지속적인 박해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날' 바로 직전에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데살로니가후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서신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일어날 사건들, 믿는 이들이 피해야 할 것들, 그리고 주님의 재림까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바울의 어린 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은 그의 서신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두 서신에서 '형제'라는 용어를 28번이나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인사, 발전과 성장에 대한 칭찬과 감사, 혼란을 가져온 점에 대한 훈계, 마지막 축도를 통해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질문

1.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의 서두에서 어떤 속성을 칭찬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3-4)
2. 데살로니가후서 1장 4-10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이 겪고 있는 박해와 환난에 대해 언급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고난에 대해 어떻게 격려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그의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3.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격려의 말을 한 후, 2장 1-3절에서 몇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들을 찾아내고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를 인용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4. '주의 날'이라는 문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재림은 예수님께서서 교회의 휴거와 성도들과 함께 돌아와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고 지상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종말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그리스도의 계시) 전에 일어나야 할 세 가지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3-8)

5.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는 방법과 주님이 그를 물리치는 방법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데살로니가후서 2:3-10)

6. 바울은 3장 1-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복음 전파에 관해 어떤 두 가지 요청을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7.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두 가지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8. 바울은 3장 6-12절에서 교회의 어떤 문제를 다루었습니까?

9. 데살로니가후서를 읽고 얻은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 요점이 특별히 의미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분의 재림 시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두번째 편지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1:1 – 3:18

요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데살로니가후서 2:15)

배경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는 중요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동방을 잇는 주요 도로에 위치해 번성하는 항구였으며, 바울은 AD 50년경에 2차 선교여행 중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설교를 한 후 교회를 세웠습니다(사도행전 17장). 2년도 채 되지 않아 바울은 새로운 교회에 편지를 통해 신자들을 격려하고 주님의 재림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조언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그 편지를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일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오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한 이들은 일을 그만두고 기다리기만 했습니다(데살로니가후서 3:11). 또한 교회에 대한 지속적인 박해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날' 바로 직전에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데살로니가후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서신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일어날 사건들, 믿는 이들이 피해야 할 것들, 그리고 주님의 재림까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바울의 어린 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은 그의 서신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두 서신에서 '형제'라는 용어를 28번이나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인사, 발전과 성장에 대한 칭찬과 감사, 혼란을 가져온 점에 대한 훈계, 마지막 축도를 통해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질문

1.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의 서두에서 어떤 속성을 칭찬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3-4)

그는 칭찬할 만한 네 가지 속성을 나열했습니다. 1)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쳤습니다. 3) 그들의 인내가 커졌습니다. 4) 그들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

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칭찬의 메시지로 시작하는 패턴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학생들에게 물어 보세요. 바울의 칭찬이 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토론을 통해 그의 말이 격려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언급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칭찬을 더욱 강화했고, 자신들이 살아야 할 명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계속 인내하도록 도전받았을 것입니다.

2. 데살로니가후서 1장 4-10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이 겪고 있는 박해와 환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고난에 대해 어떻게 격려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그의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신실한 제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며, 그들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토론은 '악은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한 말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래에 결국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은 우리의 삶에서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고통을 이해하고 인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격려의 말을 한 후, 2장 1-3절에서 몇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들을 찾아내고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를 인용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신자들에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속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토론은 우리가 배운 진리에서 '흔들리거나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사건과 사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인 개인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며, 교회 참석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일, 말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날'이라는 문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재림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휴거와 성도들과 함께 돌아와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고 지상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종말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그리스도의 계시) 전에 일어나야 할 세 가지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3-8)

바울은 주의 날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큰 배도 - 일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 반역 또는 배교의 시기.
- 죄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의 계시.
- 구속하는 자(성령)의 제거 즉 '지금 막는 자'의 제거. '막다'라는 단어는 '방해하거나 억제하다'는 뜻입니다. 억제하는 영이 제거되면 무법한 자가 '드러날 것'이고 그의 권능이 더 커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종말 연대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미래를 엿보세요" 소책자를 참조하십시오.

5.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는 방법과 주님이 그를 물리치는 방법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데살로니가후서 2:3-10)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속이는 자(2-4절)가 되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숭배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라오의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모방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영감을 받은 가짜 기적을 보여 많은 사람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은 임재의 광채로 적그리스도를 멸하실 것입니다.

6. 바울은 3장 1-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복음 전파에 관해 어떤 두 가지 요청을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 그들의 설교가 방해받지 않고 권능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2)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말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특히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우리의 책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교사, 목사, 사역자들을 방해하고 멀어지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우리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7.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두 가지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바울은 주님께서 신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불신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는 그분의 재림에 대한 강하고 결연한 관심을 의미하며,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조정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구절에서 '기다린다'는 단어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사용된 단어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염두에 둔 것은 데살로니가인들이 직면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계속 살 수 있는 용기입니다.

8. 바울은 3장 6-12절에서 교회의 어떤 문제를 다루었습니까?

바울은 교회 구성원 중 일부가 게으른 태도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생산적인 활동 대신 문제를 일으키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질서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조용히' 일하고 스스로를 부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에서 학생들에게 경건한 삶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질문하십시오. 휴식과 여가 시간이 우리 삶에 필요하며 균형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우리 각자는 재능과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9. 데살로니가후서를 읽고 얻은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 요점이 특별히 의미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칭찬의 가치, 고난의 역할, 주님의 재림, 적그리스도, 인내의 필요성,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를 포함한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결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분의 재림 시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